



### 증례 IV-1

## 전치부 단일 결손부의 Immediate implantation과 Implant의 immediate loading technique에 관한 임상증례

장혁진\*, 임병진, 한동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교실

Oral Presentation

과거의 임플란트의 개념은 기존의 자연치 발치 후, 발치와의 연조직과 치조골이 완전히 치유된 후에 비로소 drilling하여 식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제한조건이 있기는 하나 발치 직후에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technique이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임플란트 식립후 바로 인상을 채득 후 24시간 이내에 상부보철물을 연결해주어 기능하게 하는 immediate loading technique이 선택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환자의 외과적처치 횟수를 줄일 뿐 아니라 환자의 기능과 심미의 만족도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고 빠른 임플란트치료를 가능케 하며 잔존치조제의 골흡수를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치료로 생각되어진다.

1977년에 브로네막에 의해 소개되어진 성공적 임플란트 시술의 protocol은 발치 후 치유된 골조직에 임플란트를 식립 후 3-6개월간의 stress-free healing period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fixture를 submerge시키고 2차수술을 통해 보철물을 연결시키는 술식을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 시행되어지기 시작한 immediate implantation과 immediate

loading technique이 성공적으로 시술되어짐에 따라 완전한 stress-free한 상태가 바람직하긴 하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닌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1993년에 Brunski et al에 의해 발표되어진 임플란트 자체에 100 $\mu$ m이상의 움직임만 가해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의 osseointegration에는 문제가 없다는 실험적 결과, 즉 "acceptable micromotion"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초기에는 edentulous환자에 있어서만 시행되어질 것,최소한 10mm이상의 식립깊이와 cross-arch stabilization등을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술되었으나 현재에는 이 뿐 아니라 전치부 단일치이에서도 immediate loading 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구연에서는 전치부에서 immediate implantation을 한 경우, immediate implantation과 immediate loading technique를 같이 시행한 경우, delayed implantation을 하였으나 immediate loading 한 3가지 실제임상 증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protocol과 criteria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